



특별기획 곁도는 제주4·3 치유대책 (중) 진상조사

기간·인력·예산 제한없이 추진돼야

최근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기대 이하' 평가
상시신고체계 구축·심의권한 실무위가 가져야
기간내 마을 전수조사 한계... 국비 확대돼야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65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완(未完)의 역사'로 제주사회 아픈 생채기로 남겨 있다.
4·3이 '끝나지 않은 역사'임은 최근 2만7792명이 접수된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정부의 미미한 지원 속에 '미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힐 날은 요원하지만 한다.

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추가 신고 추진 당시 미신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지역 신청자는 단 1명에 그쳤다. 때문에 '4·3'의 상처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추가 신고접수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신고를 통해 이미 4만5285(희생자 1만4032명·유족 3만1253명)명이 확정된 바 있으나 4·3유족회 등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사된 추가접수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유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



제주 4·3 제65주년을 맞아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주 4·3해원방사업제를 봉행했다.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 '초읽기'

제주관광공사, 이달중 세관에 면세점 특허 신청

제주관광공사가 이달부터 서귀포시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1일 성산항 내 터미널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귀포시로부터 면세점 공간을 임대하고 빠르면 이달중 제주세관에 성산항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내국인면세점

어났다"며 "이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세관에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신청 허가가 나면 면세점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면세점 임대 허가 신청과 제주세관에 특허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컨벤션센터 내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공항 면세점을 대폭 확장 운영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대로기자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the 16th period, including assets and liabilities.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Jeju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Industry Union, listing various positions and requirements.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Hearing Aid Plaza' (국제보청기프라자) offering hearing aid services and product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티엔정보기술(주)), providing IT solutions and services.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

정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공식 접수
5월말 FAO 총회때 발표... 현장실사 후 결정

제주도농업유산이자 명물인 '제주 밭담'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시각에서 조명을 받는다.
정부는 최근 '제주 밭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밭담'은 오는 5월말 일본에서 열리는 FAO총회에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발표를 거쳐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밭담' 농업유산 신청서에 대한 최종 전문가 자문과 보완을 거쳐 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제주자치도는 제주밭담이 이미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국비(10억5000만원)와 지방비(4억5000만원) 등 15억원을 투입해 돌담발생비 개발과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가칭 '농어촌 다원적자원보존관리법'을 연내 제정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제주자치도는 보존·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주밭담·돌담의 전수조사, 장인 지정·육성, 시범지역 지정, 전통농법·친환경농업, 단계별 관리시스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 중곡의 푸에 통 차 농업, 일본의 사도 따오기 공생농법 등 11국 19개 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19국 31개소가 후보목록에 올라 있다.
강시영기자

지방세 모범납세자 1만8000여명 선정

제주자치도는 1일 '2013년도 모범 납세자' 1만8609명과 유공 납세자 6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납기

거주자가 선정됐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는 제주도금고인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에서 1년간 예금금리 0.1% 추가 우대하고, 대출금리는 농협은행은 0.3%, 제주은행은 0.2% 추가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위영석기자 yswi@ihalla.com

News-in section with a headline '승진 지시 내렸지만 반영사례 적어' and several short news items.